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년 7월 24일



연중 제17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루카 11,1-13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11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루카 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 1 “주님, ()이 자기 ()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1절)
- 2 “(),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 너희가 얻을 것이다. (),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9절)
- 3 “너희가 악해도 ()들에게는 () 것을 줄 줄 알거든, ()에 계신 ()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13절)

복음 이해하기 >

①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라는 표현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전해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의 스승으로서 성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몸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기도의 모범으로서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알려주십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765항 참조). 주님의 기도는 7가지 청원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세 가지 청원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것이고, 이후의 네 가지 청원은 인간의 삶과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의 기도는 두 가지 형태로 전해지는데, 하나는 마태오 복음 6장 9-13절에, 다른 하나는 루카 복음 11장 2-4절에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에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불리는 주님의 기도를 자주 바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실천입니다.

②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 ‘에피우시오스 ἐπιούσιος’입니다. 이 단어는 주님의 기도 외에는 다른 그리스어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의미를 밝히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내일의’, ‘나날의’, ‘미래를 위한’ 등의 다양한 뜻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양식을 청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으로 적합할 것입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① 주님의 기도에 담긴 청원의 내용과 내가 평소에 바치는 청원기도의 내용을 비교하고 나누어 봅시다.

.....

.....

.....


.....

.....

.....

.....

.....



- ②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

.....

.....

.....



함께 하는 복음 묵상

“어느 한 분이 복음 묵상을 위한 도움 글을 읽어 주십시오.”

우리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짧은 기도문 안에서 하느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 한 밤중에 벗에게 빵을 꾸러 간 사람에게 대한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벗이라는 이유만으로 빵을 주지 않을지라도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필요한 만큼을 다 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를 통해 기도는 바로 끊임없이 청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고 의탁할 때에 그 은총의 선물을 넘치도록 베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늘에 계신 분을 진정으로 아버지 하느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성찰해봐야 합니다. 악한 이들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라고 하느님께 고백하며 기도를 드린다면 하느님께서 절대로 당신의 자녀의 청을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 서운함이나 원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바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태도는 나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겸손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어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미의 기도도 함께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화 묵상 >



<미사 중 주님의 기도를 손을 잡고 바치는 모습,>

출처 : <https://www.ajcunet.edu/april-2018-connections/2018/4/10/saint-louis-t>

주님의 기도를 다함께 손을 잡고 바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미사를 봉헌할 때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나의 마음을 떠올려 봅시다.

미사 중 영성체 예식은 주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례 사제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라는 말에 이어 기도를 바칩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의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깊이 새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봉헌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 ① ‘성구 정하기’ - “한 주(달) 동안 새기며 살아갈 ‘성경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정해 봅시다.”

_____장_____절 / _____

- ②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 

- ③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당신 자녀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마침 성가(8쪽)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새로운 선교 열정을 위한 기도’(뒤표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